

프랑스·핀란드 經協使節團에 다녀와서

鄭 義 錫

本會 會長 · 韓國鑄鐵管(株) 代表理事

프랑스·핀란드訪問經濟協力使節團의 一員으로 79.6.11. 서울을 出發, 約 2週間에 걸쳐 프랑스와 핀란드를 公式訪問하고 스위스, 伊太利, 英國 等 西歐 數個國을 돌아볼 機會가 있었다.

이번 經濟協力使節團은 申鉉禧副總理를 團長으로 政府側 18名, 民間代表 18名, 報道陣 6名으로 構成되었으며 韓-佛, 韓-핀란드 兩國間의 相互均等貿易促進, 經濟的인 諸般 紐帶強化와 相互協力を 增進시키는데 目的이 있었다.

韓國을 出發 먼저 핀란드를 公式訪問한 使節團은 6月 15日 헬싱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申副總理를 위시한 韓國代表團과 레스코콜라 핀란드 對外通商省長官 및 핀란드經濟界 人士 等 모두 12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2次 韓國-핀란드經濟協力委員會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申副總理는 「韓國은 良質의 勞動力을 갖고 있으며 또 先進工業國의 技術導入이 必要한 반면 핀란드는 풍부한 賦存資源과 높은 水準의 技術을 갖고 있어 相互補完의 關係를 유지함으로써 經濟協力效果를 이룰 餘地가 많다」는 要旨의 致辭를 했다.

이날 會議는 兩國의 第3國 共同進出을 위한 韓-핀란드經濟協力振興센터를 設立하고 船舶裝備技術 및 防衛産業 세미나를 가까운 時日內에 서울에서 갖기로 合意하였다.

韓-핀란드經濟協力は 77年 9月 商工部 長官을 團長으로 한 韓國官民通商使節團의 핀란드訪問으로 民間經濟協力委員會 設置에 合意, 77年 12月 20日 第1回 韓-핀란드經濟協力委員會 合同會議가 핀란드側代表團 37名 韓國側代表團 8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서울에서 開催됨으로써 兩國間의 經濟協力の 幕을 열었다.

핀란드는 面積 約 337千km²로 人口는 474萬名, 氣候는 夏季平均氣溫 13℃~17℃, 冬季平均氣溫 -3℃~-30℃의 北極圈에 位置하여 蘇聯과 國境을 接하고 있는 立憲共和國이다. 外交路線은 積極的인 中立政策을 標榜하여 蘇聯 및 東歐共產國과 平和의 關係를 持續하면서 스칸디나비아 諸國 및 美國 等과 友好關係를 擴大해 나가고 있다. 韓國과는 73年 8月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현재 韓國은 핀란드에 常駐大使館을 두고 있으나 핀란드는 駐日大使가 兼任하고 있으며 73年 4月 南北韓을 同時 承認한바 있다.

地理的으로 蘇聯과 接境하고 있는 핀란드는 1917年 6月 러시아帝國으로부터 獨立한 이후 1939年에 蘇聯의 侵攻을 받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

1948年 4月 蘇聯과 友好條約을 締結하였으나 國防에 대한 國民의 認識이 매우 透徹하고 특히 民防衛制度가 完璧하게 되어 있어 現役으로는 9個月만 服務하고 非常時에는 事前에 定해진 自己位置로 非常出動을 하게 되어 있다. 施設 또한 모두 地下에 되어 있어 民防衛制度나 施設面에 있어서 完全한 體制를 갖추고 있는 것이 印象的이었다.

특히 핀란드는 歐洲 어느 나라에 비해 깨끗한 上水道 水源을 갖고 있어 飲料水가 좋지않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있었다.

핀란드의 최근 經濟的 動向은 油價·쇼크 이래 인플레이와 高貨金에 의한 國際競爭力 弱화와 貿易赤字 등에 의한 國際收支 惡化 등으로 GDP 成長率 1% 內외의 低成長이 繼續되어 왔으나 77年 4차에 걸쳐 핀란드마르크貨의 評價切下 이후 強力한 輸出促進과 輸入抑制 措置로 貿易黑字를 나타내고 있고 78年에도 繼續 持續勢를 나타냄으로써 79년에는 景氣回復이 뚜렷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었다. 그러나 失業率이 76年 이래 繼續 增加勢

를 보여 78년에는 7.5%로 핀란드經濟의 가장 큰不安要因이 되고 있었다.

産業構造는 主産業인 林産業이 海外需要의 減退로 設備能力의 70~75%밖에 稼動치 못함에 따라 70年 中盤부터 纖維, 化學工業이 急伸張 되고 있으며 특히 金屬 엔지니어링 分野의 設備能力을 擴充하고 重化學工業分野의 開發을 試圖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韓國-핀란드經濟協力 實績은 78年 民間 借款 81千弗에 不過하였다. 貿易現況은 73年 韓國의 對핀란드輸出이 100萬弗을 넘은 후 꾸준한 伸張을 보여 78年 輸出 5,900萬弗, 輸入 2,500萬弗로 擴大되어 나가는 하였으나 핀란드 全體 貿易量에 비하면 0.7%에 不過하여 앞으로 貿易擴大의 餘地가 많다고 하겠다.

한편 物價體系는 原資材價格이 上昇 또는 下落함에 따라 連動이 되도록 되어 있어 特異하였다.

앞으로 韓-핀란드의 經濟協力擴大를 위하여는 첫째 出超에 따른 輸入規制 및 非關稅 障壁을 緩和하기 위해 政策輸入強化가 必要하며, 둘째로는 輸入規制의 우회를 위해서는 Turku, Hangko 등 自由貿易地帶를 活用, 積極的인 直·合作 投資進出이 要望되며, 셋째로는 韓-핀란드經濟協力센터를 設立 相互情報交換 및 技術, 資本 등 具體的인 方案 講究가 必要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프랑스를 訪問한 韓國-프랑스經濟協力使節團은 6月 20日 파리의 世界銀行 歐州事務所에서 開幕된 第10次 IECOK(對韓國國際經濟協議體) 總會에 參席하였다. 이 會議에는 美國, 英國, 獨逸, 佛蘭西, 日本, 伊太利, 호주,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10個國이 參席했으며 申副總理는 「韓國經濟의 새로운 課題와 展望」이라는 演說에서 오는 81年度까지 135億弗의 外資導入의 必要性, 韓國農村의 當面問題, 91年度까지의 韓國 經濟展望, 所得分配의 均等化, 環境保全, 大衆交通手段 등을 擴充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韓國과 프랑스의 經濟協力は 이미 完工된 八堂岬, 仁川港 도크, 臨溪港, 알미늄工場, 시멘트工場, 浦項綜合製鐵 3段階擴張 등 基幹産業分野에 參與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商業借款이 활발할 것으로 展望되었다.

1959年 이후 프랑스로부터의 資本導入現況은 總 7億 2千 4百萬弗로서 78年度에는 公共借款 1千 2百萬弗, 商業借款 1億 5千 4百萬弗 直接投資 260萬弗이었다.

프랑스의 최근 經濟動向은 石油波動으로 沈滯

되었던 1976年 이후 回復基調를 지속하고 있으나 77年의 物價上昇率 9.5%, 失業率 6%, 貿易收支의 赤字累積 등으로 GDP成長率은 目標인 4.5%에 未達하는 2.9%의 成長을 보였으나 78年度에는 經濟成長은 3.3%로 약간의 改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産業現代化計劃에 따른 失業率의 增加는 계속되고 있으며 에너지價格引上, 輸入原資材價格의 上昇으로 物價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狀態이나 産業生産은 國內需要의 伸張으로 好調를 나타내고 있었다.

프랑스의 貿易은 EC結成과 함께 빠른 增加를 보여왔으나 73~77年의 年平均 增加率은 16% 정도로서 世界貿易에서 占하는 比重은 6% 정도이다. 78年度에는 輸出 79,378百萬弗 輸入 81,795百萬弗로 貿易收支는 2,417百萬弗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主要 交易 相對國은 西獨, 베네룩스, 伊太利, 英國 등 EC 諸國에 偏重되고 있으며 그외 主要 對象國으로는 美國, 中東諸國, 프랑스권諸國이 있고 韓國을 包含한 亞細亞諸國과의 交易이 프랑스 全體 交易量에 차지하는 比重은 極히 미약한 實情이었다.

또한 主要輸出入商品은 輸出에 있어 農產品原資材의 比重이 낮아지고 戰略輸出品인 航空機, 船舶, 自動車, 發電設備 등은 年平均 23%의 增加를 보이고 있었다.

輸入商品으로는 原油가 總輸入의 24%이며 化學製品의 半製品, 機械類, 電子製品, 鐵鋼, 纖維製品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은 프랑스 市場의 特性으로서 프랑스는 世界 第4位의 經濟大國이며 輸入에서 800億弗 規模의 큰 市場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輸入 管理形態가 EC 어느會員國보다 複雜하고, 域外 先進國 및 開途國들의 商品에 대한 EC內 輸入規制를 主導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는 流通構造가 比較的 落後되어 있어 小規模 零細輸入業者가 대부분으로 韓國과 같이 遠距離에 있는 國家는 接觸의 어려움이 있으며, 프랑스人의 商品購入의 細心한 特性 등 프랑스 進出時에는 특히 留意하여야 하겠다.

韓國의 對프랑스貿易은 71~77年 사이 年平均 93%의 增加를 보여왔으며 우리 나라 總輸出에서 占하는 比重은 71年의 0.2%에서 77년에는 1.2%에 달하였으나 輸入은 75年 以後 航空機와 機械類의 輸入 急增으로 78년에 2億 3千 3百萬弗의 赤字를 나타냈고 EC國中 프랑스만이 唯一한 入超國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와의 經濟協力擴大를 위하여는 輸入規制를 強化하고 있는 EC 諸國의 中心國인 프랑스와의 經濟外交에 積極的인 努力이 必要하겠고 日本, 美國에 偏重되어 있는 技術導入을 原子力 및 化學工業에 첨단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프랑스와 技術協力關係를 強化해 나가야 하겠다.

한편 아프리카 등 第3世界에 進出하기 위한 合作投資進出方案, 르아브르 등 産業貿易地帶의 進出方案 등 多角的인 檢討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와 핀란드公式訪問日程을 마치고 스위스, 伊太利, 英國을 訪問하였다. 이들 나라에 대하여는 이미 紹介된 글이 많아 자세한 紹介는 생략하기로

하겠으나 스위스에서 알프스의 웅장함과 근면한 國民性, 15,000 弗의 높은 國民所得, 특히 民防衛體制의 完備에는 부러움을 느꼈다.

伊太利의 都市는 外觀으로 보기에 오래되어서인지 荒廢하게 보였으나 聖堂建築物 등은 역시 손꼽을 만하여 觀光資源의 한 몫을 맡고 있었다.

英國은 역시 紳士의 나라답게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國會議事堂 建物은 議會民主主義發祥地답게 매우 우아하였다. 또 市街地에 立看板이 없어 街路가 매우 整然한 것이 印象에 남았다.

그외에도 유럽 各國의 共通된 印象은 매우 親切하였다는 것으로써 觀光韓國을 指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外國訪問客에 대한 親切한 態度를 갖도록은 國民이 努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會員動靜 · 會務報告 · 會員動靜 · 會員報告

毎年 協會가 主催하는 「깨끗한 물의 創造를 위한」 學術發表會인 第3회 水道심포지엄이 釜山市 後援으로 지난 7月7日 上午 10時 釜山南工會議所 大會議室에서 來賓과 全國의 水道關係公務員 그리고 會員 등 150余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況理에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崔錫元 釜山市長의 祝辭(田英春 副市長 代讀)에 이어 論文發表와 水道施設視察 등 下午 8時20分까지 予定된 行事를 모두 마쳤다. 第3회 水道심포지엄에서 發表된 論文은 다음과 같다. (函報參照)

○ 飲料水에 包含된 微量의 Trihalomethane 과 그 除去에 必要한 處理技術—嶺南大 教授 朴永圭—

○ 上水の 殺菌과 Trihalomethane의 除去—陸士教授 趙光明—

○ 琴湖江汚染이 洛東江水質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延世大 保健大學院教授 鄭勇—

○ 오존에 의한 淨水의 高級處理에 관한 實驗的 研究—서울大 朴仲鉉教授—

○ 書面質問에 대한 答弁—漢陽大 金元滿教授—

○ 丁奎榮 副會長

漢陽大學校에 提出한 博士學位論文이 通過되어 오는 8月31日 同大學에서 工学博士學位를 받게 되었다. 學位論文은 「水質變化에 대한 淨水處理의 實驗的 研究」이다.

○ 具滋明 會員

慶尙南道 治水課에 勤務하다가 지난번 새로 昇格된 馬山市水道局長으로 榮轉하였다.

○ 金元滿 理事

大韓土木學會 衛生分科委員長으로 被選되었다.

○ 朴鍾文 會員

오랫동안 勤務하던 建設部 上水道課를 떠나 海外 建設業體인 國際綜合建設(株) 理事로 옮겼다.

○ 李鍾崙 會員

馬山市水道局이 昇格되면서 給水課長으로 發令되었다.

○ 韓相年 理事

全州市水道課長에서 全北道 治水課長으로 옮기고 水道局 昇格과 함께 局長에 全勝, 給水課長 오상실, 業務課長 신용균氏가 새로 赴任하였다.

○ 永進鑄鐵工業株式會社

經營陣이 바뀌어 새로 代表理事에 권병노氏가 就任하였다. 서울事務所도 中區忠武路 1街 25-5 대연각빌딩 801호실로 移轉하였으며, 所長에는 신동현氏가 就任하였다.

○ 固城產業社

새로 事業分野를 넓히기 위하여 環境保全法에 의한 公害關係處理業體로 保社部에 綜合登錄을 마쳤다.